

李滉 理發氣隨氣發理乘 學說의 理解와 應用

- 氣候適應形質論의 觀點에서 -

趙箕鎬*

차례

- I. 序論
- II. 本論
- III. 結論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성리학의 理氣論을 발전시킨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단지 고전 철학학설로서의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학설인지, 기후적응형질론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李滉은 그의 만년 대표작 聖學圖에서 제1 太極圖 내부 圖面文을 통하여 통합진화 학설로 우주생성전개의 기본원리인 理(principle)를 밝히고, 太極(太極) 이후 그 理에 의하여 우주형성기본물질인 氣(material)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만물과 함께 진화해온 인간의 기본 理인 本성(性)을 설명한 후에, 제6 心統性情圖에서 구체적으로 인간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설명하였다. 이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척도로 인간의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특성의 발생과 그 발현현상을 분석한 결과, 우주전개의 기본 원리인 理로부터 발생하여 그와 공통분모를 공유하며 진화되어온 遺傳形質理는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그 形質理가 바로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의 기본인 유

*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전본성을 이루는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臟器線氣偏在 특성이며, 氣發理乘인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의 원리에 의하여 생후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의 발현도를 결정하는 것은 臟器線氣偏在의 偏差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形質理가 서로 다른 각 표현형별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특성도 다르게 발현되는 것은 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에 따라 性發爲情에 의하여 발현(發)되는 자연스러운 생리작용의 當然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전된 기본틀인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장기상호관계의 편차특성(形質理)은 未發의 心體로 볼 수 있고, 이 心體의 기본틀 안에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氣發理乘의 원리에 의하여 편차가 발생하여 已發의 心用이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면 신뇌 대뇌피질의 이성으로 통제하기 쉽지 않은, 不善이 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不善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理인 形質理에 맞게 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편차를 감소시켜 臟器線氣가 특정 臟器線에 치우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無過不及) 平常의 상태로 발현되도록 유도하여, 臟器線氣가 理法에 맞게 운용되고 본래 善한 선천의 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경과 그 형평성의 영향을 받는 불섭생으로 인한 불건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不善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不善의 예방 및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는 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 원리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偏差를 줄여주는 기후적응형질맞춤 심신예방관리법을 公的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후적응형질별로 발달된 신체장기작용원리(理)의 안정평형이 손상(減)되어 不善이 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고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理인 形質理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偏差를 감소시켜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개인의 心身건강을 관리하고 그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인문학이 제시하는 개인맞춤 심신예방관리와 사회예방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류가 추구하는 홍익인간의 맞춤 심신예방관리법과 사회예방관리법의 개발과 적용에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기여할 수 있고, 이 李滉의 학설은 앞으로 응용학문의 측면에서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간과 그 사회를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溫故而知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문학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이황, 성리학, 성학십도, 이기론, 이발기수 기발이승, 본성, 기후적응형질 표현형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예방의학, 맞춤의학, 건강관리, 사회관리, 심리진화.

I. 序 論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이동역사에서 동아프리카로부터 히말라야산맥 장애물 이북의 추운 내륙이동경로 보다 아시아대륙 남부 해안경로를 따라 먼저 한반도로 이주해온 다수의 더운 기후에 적응한 형질을 지닌 한반도인들이¹⁾ 발전시킨 전통문화는, 한반도가 동아시아 고인돌문화권의 중심지였던 고인돌시대에 그 꽃을 피운 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고유문화로 면면히 계승되어 왔지만, 중국에서 꽃을 피운 유학이 전래된 이후에 유학을 기반으로 전개된 한국의 문화나 학문은 한국의 입장이 아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발전시킨 전통문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데,²⁾ 이는 성리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1) 참조: 조기호·조한규, 2008,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람, 96쪽.

2) 한반도 주변 황해건너 산둥반도까지 그 영향권이 형성되어 있었던(현재의 중국에서는 산둥반도와 만주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만 고인돌이 발견되며 아시아대륙의 고인돌 분포와 그 유래를 살펴보면 고인돌문화는 아시아대륙 남쪽으로부터 한반도로 유입된 문화로 볼 수 있다.) 한반도 중심 동북아 고인돌문화를 기준으로 보면, 유학도 한반도 중심 고인돌문화권에서 전래된 정신문화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한반도 중심 동북아 고인돌문화권의

유학과 유교문화가 중국에서 발전되어 전파되어 왔지만 한국 문화 속에서 이를 다시 유지 발전시켜 한국의 문화로 발전된 내용으로 언급될 수 있는 성과를 新儒學 분야에서 찾는다면, 이에 적합한 대표적인 이론 중의 하나가 바로 理氣論을 발전시킨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³⁾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李滉의 학설이 실학자들의 강도 높은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표적인 정신문화는, 아프리카를 출발하여 약 4만5천 년 전부터 아시아 대륙 남부 해안이동로를 따라 한반도로 이동해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닌, 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HT)과 폐선(LU)이 약화되어 심폐기능의 활성화가 느리기 때문에 다소 느리고 뒤서기를 선호하며 먼저 양보하고 유순인자하며 인정이 많은 본성이 유전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흔적은 지금도 한반도의 정이 많은 문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인정 많은(눈물도 많은) 사회문화가 추운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 및 교감선(GV)이 강화되어 활발하고 외향적이며 대가 세고 굴강한 특성이 발휘되는 사람들에 의한 중원의 힘의 논리와 정복사회 문화보다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여 공자가 仁의 사상을 기본으로 한 유학사상을 중국사회에 적용시키고자 노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論語, 東夷列傳, 山海經, 四庫全書 등에서의 언급을 떠나, 추운 기후대에 적용한 D형질에 대비되는 더운 기후대에 적용한 A형질의 발현 특성을 근거로 본 견해이다.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로 발현되는 정신적 사회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순후하고 먼저 사양하고 양보하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추운 기후대에 적용한 D형질보다 더운 기후대에 적용한 A형질에서 더 잘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힘의 논리가 아닌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仁情문화의 산물로 볼 수 있는 정사암회의나 제가회의 및 화백회의 제도와 같은 삼국이 지녔던 合坐制度도, 주로 병하기 이후에 북방에서 이동해온 굴강한 정복자들이 남하하여 왕권을 장악하고 왕족을 형성한 후에도 고인돌 청동기시대에 이미 삼한에 정착되어 있었던 부족연계민주 정치의 고유전통문화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유지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소수의 이주 정복자가 다수의 현지민과 타협을 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고인돌시대에는 무정무단 세력가가 아닌 일정 수준의 정신수양에 도달한 사람이 단군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추측된다.

3) 본고에서 理發氣隨氣發理乘論이라고 하지 않고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라고 한 이유는 理發氣隨氣發理乘을 관념적으로 조직된 논리가 아닌 실증성을 지닌 이론체계로 보기 때문이다.

방어함은 물론 현재에도 살아 숨 쉴 수 있는 생생한 학문으로 계승 발전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용검증이 필요하다. 더 바람직하기로는, 박물관에 모셔두고 훌륭한 고전으로 대우하며 국내외에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응용학문으로써의 면모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용학문적 측면을 더 연구 개발하여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현대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를 언급한다면 바로 동서고금의 많은 학문분야에서 인간의 心身과 사회의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오고 있는 인간 본성⁴⁾과 환경(Nature versus Nurture)⁵⁾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효과적인 인간 心身과 사회의 관리를 위한 유전본성과 생후환경의 관계규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래 타고나는 형질특성과 그 타고난 특성의

4) 조기호·조한규 2008,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람, 331쪽, 인용: “인간의 원시뇌가 담당하는 본성(性)은 본래 자연현상과 생명현상의 발생과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자연법칙(理)에 속하며, 우주자연과 物我一體를 이루는 對自然性을 지닌 공통의 善한 것이다. 그리고 이 心體의 性은, 예를 들어 仁은, 인식하는 환경의 범위 안에서 대상에 대하여, 對人性을 포함한 對環境性의 端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유하는 친척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인간으로 분화되기 전 단계부터 존재한 인간과 동물 사이의 共通共心の 未發의 性이 부상을 당한 동물을 보면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의 端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공유유전자로 확인이 가능하고 동물로 분화되기 전 단계부터 존재한 인간과 식물 사이의 共通共生の 未發의 性이 가뭄에 시들어가는 식물을 보면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의 端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생명체와 물질계 사이의 지속적인 구성요소의 교환 및 동일하게 작용하는 자연법칙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생명체발생 전 진화단계부터 존재한 인간과 물질 사이의 共通共存의 未發의 性이 산이 무너진 것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의 端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들이 아직도 석기시대의 적응상태를 유지하는 인체의 진화속도를 추월하여 자가가속 진화되고 있는 인간문명에 취하여 제대로 발현되고 인지되지 못할 뿐이다.”

5) 참조: Matt Ridley 저, 김한영 역, 2003, 『Nature Via Nurture(본성과 양육)』, 김영사, 374쪽.

생후 발현도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론들 중에서 본고에서는 근본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전통의학적 체질론보다 근원적 발생을 중시하며 진화론적 관점에서 조명되어 소개된 인류 기후적응형질론을 기본자료로 고찰하고자 한다.⁶⁾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은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많은 문헌들이 이에 관하여 설명해오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李滉이 만년에 성리학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자신의 사상을 가미하여 요약 편집한 결과물로 볼 수 있는 聖學十圖 중에서 제6 心統性情圖에 언급된 理發氣隨氣發理乘의 내용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리고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理와 氣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理와 氣의 고찰을 위한 참고자료로는 聖學十圖 열 폭 중에서 다른 圖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근본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태도로 살펴야 하는 圖幅으로 소개된 제1 太極圖의 圖面 하단 좌우에 圖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독특한 畫法으로 표현된 圖面文을 기본으로 삼았다.⁷⁾

6) 참조: 조기호·조한규, 2008,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람, 64쪽ff.; 조기호, 2006, “기후대별 환경적응체질의 발생과 특성”, 한국환경보건학회, 32-2, 149-163쪽. 李滉이 聖學十圖에서 가장 중요한 제1도로 太極圖를 설정한 이유도 인간의 본성과 언행의 문제를 표상적으로 보려 하지 말고 그 근본원인을 살펴 현상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밝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고찰하는 참고자료로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는 체질 구분론 보다 근원적 발생원인을 중시하는 기후적응형질론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7) 조기호, 2005,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의 理解와 應用”,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6호, 277-371쪽, 요약인용: “산수화 구성기법에서와 같은 예술적인 기법으로 太極圖의 圖面 안에 포함시켜 표현된 독특한 설명문 중에서 ‘○萬物化生以形化者言也各一其性而萬物一太極也’의 의미는, 끊임없이 재발생하고 변화하며 진화하는 수많은 개체들(萬物)은 모두 다른 아닌 빅뱅(太極)에서 발생한 우주자연 기본구성물질들(氣)이 우주자연 발생진화원리(理)에 따라 진화하면서 형성된 특성에 의하여 개개의 형태

이러한 기본자료들을 참고하여 본고는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단순히 이론적으로 훌륭한 그러나 현실성이 결여되고 관념적으로 조직된 고전 철학이론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실사회에 적용 가능한 학설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인간의 본래 타고나는 유전특성과 그 특성의 환경에 따른 발현도의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진화론적 기후적응형질론을 대상으로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검증하면서,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인류의 오랜 화두인 천부본성과 후천환경의 관계규명 및 효과적인 心身과 사회의 관리에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本論⁸⁾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척도로 보면, 인류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⁹⁾ 心身특성들은, 거시적 우주진화의 관점에서는 빅뱅(太極)에서

를 띠는 것(形化者)이지만, 이들도 우주진개과정상의 발생진화원리(理)와 근원적으로 동일한 본래 원리특성(性)을 지니고 그 원리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진화되어 나가고 있는. 곧 이 우주의 하나의 빅뱅(太極)에서 출발하여 빅뱅(太極) 발생의 궁극의 원리(理)에 의하여 진화해 나가고 있는, 빅뱅(太極) 전개의 연속선상에 있는 빅뱅(太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화과정도 우주진화법칙과 다르지 않은 원리의 理가 發하고 그 理를 표현하는 우주재료인 氣가 隨하는 원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8) 본고에 소개되는 내용의 기본구상은 다음 두 저술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참조: 조기호, 2005,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의 理解와 應用,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6호, 277-371쪽; 조기호·조한규, 2008,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담, 70쪽ff.). 여기서는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의 가치와 유용성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기 위하여 전술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면서 용어를 새로 규정하고 사례중심으로 구체화시켜 설명하였다.

9) 기후적응형질론에서는 인류가 동아프리카에서 전 세계의 다른 기후대로 이동하여

시작된 우주자연의 전개법칙(理)이 발현(發)하고 우주구성 기본물질(氣)로 이루어져 발생한 생명체가 이에 따른(隨) 결과이며, 인간진화의 관점에서는 자연적응진화원리(理)가 발현(發)하고 인체(氣)가 이에 따른(隨)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표현형의 정신적 및 사회적인 특성의 발현(發) 원인은 형질발생 기후대의 자연환경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생물¹⁰⁾의 자연적응원리(理)에 따른 심리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氣發理乘에 의하여 발현되는 이들 특성은, 해당 기후대에 적응하는 진화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理發氣隨에 의하여 발생하여 형질특성 발현의 근원(遺傳形質理)이 되는 장기선¹¹⁾의 특성과 함께 性發爲情¹²⁾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李滉은 聖學十圖 제6 心統性情圖에서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당시 논란이 되었던 四端¹³⁾과 七情에 적용하여 설명하였는데, 이 理發氣隨氣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해당 기후대의 자연환경특성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들을 기준으로 여덟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들(기본 표현형: Aw[○]형, Af[○]형, Dw[⊕]형, Df[⊕]형, 변형 표현형: Aw[⊕]형, Af[⊕]형, Dw[○]형, Df[○]형)이 구분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참고문헌들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재언급을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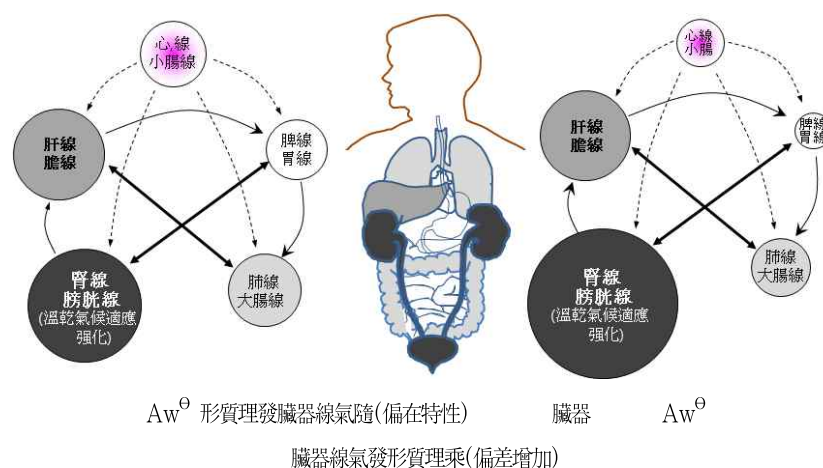
- 10) 여기서 사회생물이란 같은 종뿐만 아니라 자연의 물리적 환경요소를 공유하며 함께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동식물의 종들과 상호 이기적 경쟁뿐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존협동의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진화하는 생물을 뜻한다.
- 11) 장기선(body meridian)이란 간선(LR), 심장선(HT), 비취장선(SP), 폐선(LU), 콩팥선(KI), 쓸개선(GB), 소장선(SI), 위장선(ST), 대장선(LI), 방광선(BL), 부교감선(CV), 교감선(GV) 등을 말한다.
- 12) 여기서의 性은 性卽理의 관점에서 본 性으로 이해하였다(참조: “性卽理也何以不謂之理而謂之性蓋理是泛言天地間人物公共之理性是在我之理” 陳淳저 김영민 역, 2001, 북계자의, 예문서원, 81쪽).
- 13) 참조: 조기호, 2005,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의 理解와 應用,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 36호, 277-371쪽; 조기호·조한규, 2008,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담, 70쪽. 수정인용: “기후적응형질론의 관점에서 보면, 四端은 形質理인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무의미한 상태에서도 理發氣隨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발현이 되는 것으로 그의 근원은 진화 역순으로 공유하는 공통분모의 본성(性)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發理乘 학설을 性發爲情의 관점에서 기후적응형질 기본 표현형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아프리카에서 호모 사피엔스 원조 표현형으로 발생한 Aw^{θ} 형은 덥고 건조한 기후대 환경에 적합하도록 적응하면서 理發氣隨인 形質理發臟器線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臟器線氣偏在 특성에 의하여 심장선(HT)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形質理의 제어(乘)에 맞게 臟器線氣¹⁴⁾가 발현(發)되는 원리(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에 의하여 小心한 특성이 발현되며 폐선(LU)도 약화되어 심폐기능의 활성화가 느려서 언행이 다소 느리고, Savana 기후대 적응 심리특성이¹⁵⁾ 臟器線氣偏在 특성과 함께 발현되어 나서기 전에 조심하고

공통분모의 性은 진화공통조상의 후손이 기본적으로 지니는 것으로, 인간에게도 오랜 심리진화과정에서 형성되어 밈(meme)에 비유되듯 유전되는 진화유산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지닌 모성애나 측은한 마음은 포유동물들에게서도 공통분모의 성격으로 발현되어 개나 늑대가 사람의 아이를 자신의 거처로 옮겨 수유하며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입장에서 性은 생명체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인간 진화 전 단계에서부터 존재했던 진화공통분모의 정신적·사회적 진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보다 더 근원적인 性은 빅뱅(太極) 이후 우주진개의 근본원리(理)에서 출발한 것이며, 빅뱅 이후 발생한 우주구성기본물질(氣)과 동일한 미시세계의 기본물질로 구성되고 지속적으로 그 구성물질을 자연계와 교환하고 있는 인체(氣)가 그 理에 따르면 不善 발현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七情은 臟器線氣偏在의 편차정도에 따라 자율신경처럼 원시뇌 뇌간과 구뇌 변연계의 자동모드에 의하여 氣發理乘의 원리로 발현이 되는 것으로 편차의 심화정도에 따라서는 不善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발현도 어디까지나 理의 제어범위(乘) 안에서 理를 표현하는 수단인 氣가 발현(發)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氣發理乘의 원리를 적용하여 예방관리하고 그 부작용을 치유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4) 氣는 본래 理를 드러내는 수단인데, 理의 존재표현 재료로서의 성질은 $E=mc^2$ 의 관계로 이해 할 수 있다.
- 15) Aw^{θ} 형의 형질이 발생한 열대 Savana 기후대는 오랜 건기 때문에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하고 주로 건기에 줄기와 잎이 시들어도 문제가 없는 풀이 자라는 초원지대이다. 그러므로 영양류들이 맹수들을 피하여 안식처로 삼았던 나무숲이 없으므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맹수를 피할 곳이 없는 탁 트인 넓은 초원에서 언제 나타

뒤서기를 선호하며 요청을 받으면 먼저 사양하고 양보하며 또한 유순하고 인정이 많은 특성들이 발현된다.



< 그림1 > Aw^{θ} 표현형의 理發氣隨 편재특성과 氣發理乘 편차특성
 (조기호·조한규 2008, 165·176쪽, 수정·보완)

그리고 臟器線氣偏在 특성에 의하여 위장선(ST)과 비취장선(SP)이 1

남지 모르는 포식자들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행위 전에 심사숙고하며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는 특성이 진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조기호, 2011,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55쪽). 이러한 정신작용은 실제로 현대인이 아프리카 Savana 초원에 충을 들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느낄 수 있는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아남기 위한 적응방식으로 자연환경적응원리(理)에 따른 심리진화과정에서 발생한 조심스러우며 행위 전에 살피고 사전준비를 잘하며小心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쉬워지는 Aw^{θ} 형의 정신작용의 특성은, Savana의 덥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적응 진화하면서 理發氣隨에 따른 해당 자연환경적응의 산물로 臟器의 적응특성과 함께 형성되어 Aw^{θ} 형에게 잔존하면서 인지적 무의식 작용으로 Aw^{θ} 형의 환경적응특성(形質理)에 상응하게 처한 상황에 따라 氣發理乘의 원리로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차적으로 약화된 특성을 타고나므로(그림1 참조), 遺傳形質理의 제어(乘)에 맞게 臟器線氣가 발현(發)되는 원리(氣發理乘)에 의하여, 허약한 소화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Aw^{θ} 표현형이 불섭생으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도 무질서하게 그 편차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氣發理乘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形質理의 臟器線氣偏在特性이 제어(乘)하는 영향범위 안에서 심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가장 취약한 위장선과 비취장선부터 더 심하게 약화되어(그림1 참조), 위장과 비취장 관련 기능에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위산과다에 자가면역 유사증인 위십이지장궤양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기 쉽고, 그에 따라 속이 상하여 위가 쓰리고 꼬집어 잡아당기는 듯이 아픈 증상이 동반되면서 속상하고 괴롭고 예민하고 짜증이 잘 나는 등의 氣發理乘에 의한 감정(情)들이 발현되기 쉽다. 이는 뇌진화역순의 사고방식으로 不忍과 정신수양부족이라고 탓할 수 없는 생리증상 기원의 감정(情) 발현(發) 현상으로써,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다급한 심폐기능을 가동시키면서 당장은 급하지 않은 소화기능은 잠시 소홀히 하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허약한 소화기관의 소화액분비와 소화기능에 도움이 되는 규칙적인 식사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스트레스로 인식되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생활습관 등에 의해서도 가중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생활습관 개선의 양생법 및 식이요법 등과 함께, 뇌진화순행적(뇌간→변연계→신피질) 방법을 적용하여 氣發理乘인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의 원리에 맞게 직접 원시뇌와 연계된 위장선과 비취장선 및 부교감선(CV)의 강화법으로¹⁶⁾ 치우치지 않도록(不偏) 편차감소 조

16) 장기선 강화법은 금도금한 전자석(cylinders of ϕ 1.5 x 5mm x 2 NEO-MAG)을 장기선 유주방향과 N→S방향이 일치되도록, 약화법은 은도금한 전자석을 장기선 유주방향과 S→N방향이 일치되도록 접촉시켜 부착하여 적용할 수 있

질을 실시하여야 不善¹⁷⁾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은 Aw^θ 표현형의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기 전에, 위장선과 비취장선을 비롯한 모든 장기선들의 약화 및 강화 정도를 미리 살펴서, 부작용이 발현되지 않도록 그들의 심화되어 가는 편차를 氣發理乘의 법칙을 적용하여 강약조절 방법으로 줄여줌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감정발현도 사전 조절하는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不善으로의 진행가능성이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形質理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편차를 감소시켜서, 통합진화론으로 역추적할 수 있는 진화공통분모인 본래의 性(各一其性而)¹⁸⁾ 자연스럽게

고, 장기선점 강화법은 금도금한 점자석(cylinders of ϕ 2 x 1.5mm NEO-MAG)의 S극을 장기선적도 이전의 점에 부착하여(장기선적도 이후에는 반대의 극), 장기선점 약화법은 은도금한 점자석의 N극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참조: 조기호, 2006, “기후대별 환경적응체질의 발생과 특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 32-2, 157쪽, 조기호·조한규, 환경과 인간, 도서출판 청담 2008, 112쪽).

17) 조기호, 2005,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의 理解와 應用”,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6호, 330쪽, 조기호·조한규, 환경과 인간, 도서출판 청담 2008, 332쪽. 수정인용: “不善은, 대인관계가 포함된 對環境 관계에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단축기와 같은 역할수행을 위하여 신뇌 신피질이 발달한 후에도 여전히 원시뇌 뇌간과 연계된 구뇌 변연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발생하도록 진화하면서 발달되어온 個人性의 情이, 理發氣隨의 形質理發臟器線氣隨에 의하여 遺傳本性으로 물려받은 臟器線氣偏在特性을 기본으로 하여, 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에 따라 잉태부터 시작되는 環境에서 변화되는 臟器線氣偏在의 偏差 深化度에 준하여, 사회적 대인성이 포함된 공통의 環境性보다 이기적 個人性에 편중되어 발현되는 경우에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18) 本性和 環境의 문제도, 李滉의 학설로 설명하면, 遺傳된 本性이 기본이고 養育과 環境은 遺傳本性의 기본틀 안에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그 변화에 의하여 不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인데, 不善이 발생하더라도 그 치유는 어디까지나 遺傳本性에 맞게 행해져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遺傳本性에 맞는 맞춤예방관리로 不善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李滉의 학설을 적용하여 우주전개의 재료실체(氣)가 우주발생의 기본원리(理)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방

유지 발견되도록 하는 것이며,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함께 진화하여 함께 작용하고 표현되는 불가분 의존적 인과관계에 있는 각 개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李滉의 학설을 응용하면 손쉽게 찾아 적용할 수 있는, 맞춤의학과 예방의학 및 사회예방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척도로 적용하면 인간의 心身과 사회의 건강관리는 예방으로 가야하며 맞춤으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도 자연스럽게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Aw^{θ} 표현형의 形質理에 맞게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을 적용하여 예방관리를 하지 않아,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陰賊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는 조용히 있다가 예상외로 갑자기 쏘아붙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¹⁹⁾ 장기적인 증상으로는 정상시의 행동으로 미루어 전혀 예상되지 않았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행위까지도 유도되어 법적 안정성에 편향되는 강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의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臟器線氣偏在의 편차 심화도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추운 기후대에 적용하면서 심장선과 폐선 및 교감선(GV)이 강화되어 심폐기능이 쉽게 활성화

법이다. 왜냐하면 天人合一 物我一體에 의하여 빅뱅(太極)에서 발생된 우주구성기 본물질(氣)을 끊임없이 자연계와 교환하고 재구성하며 萬物과 함께하는 人體에서도 자연계에서 적용되는 중력, 강력, 약력, 전자기력의 기본 힘의 법칙이 그대로 동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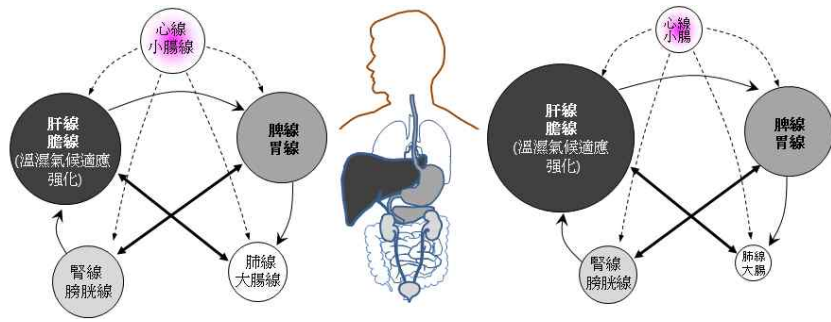
19) Aw^{θ} 표현형은 심장선과 폐선이 약화되어 심폐기능이 허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한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다.

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그때그때 발현시켜서 비상사태준비 반응인 공격-방어-도주 반응을 제때에 맞추어 누적되지 않도록 발산 해소하는 D⁺형질의 표현형들과는 달리, Aw⁰ 표현형의 경우에는 더운 열대 사바나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심장선과 폐선이 약화되어²⁰⁾ 심폐기능의 활성이 느리며 평소 小心하고 조심하는 사바나 기후대 적응특성 때문에 생존환경에서의 비상사태준비 반응이었던 공격-방어-도주 반응이 때맞추어 발산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다가 임계점에서 갑자기 발산 표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계속 심화되어 가는 그 편차를 미리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부작용이 초래되었다고 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형식적인 평가보다는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로 본 Aw⁰ 표현형의 臟器線氣偏在의 편차 심화도에 따른 氣發理乘의 발현 증상을 정확하게 확인 평가하고 그 인지된 근본원인을 실질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치유를 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²²⁾

20) Aw⁰ 표현형이 단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나서기 전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는 이유도,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심장선과 폐선이 약화되어 평소 심폐기능이 약하게 발현되기 때문에, 심장선과 폐선이 강화되어 심폐기능이 쉽게 활성화되는 D⁺형질의 표현형들과는 달리, 시작에 앞서 warming up의 사전 가동 필요성이 더 요구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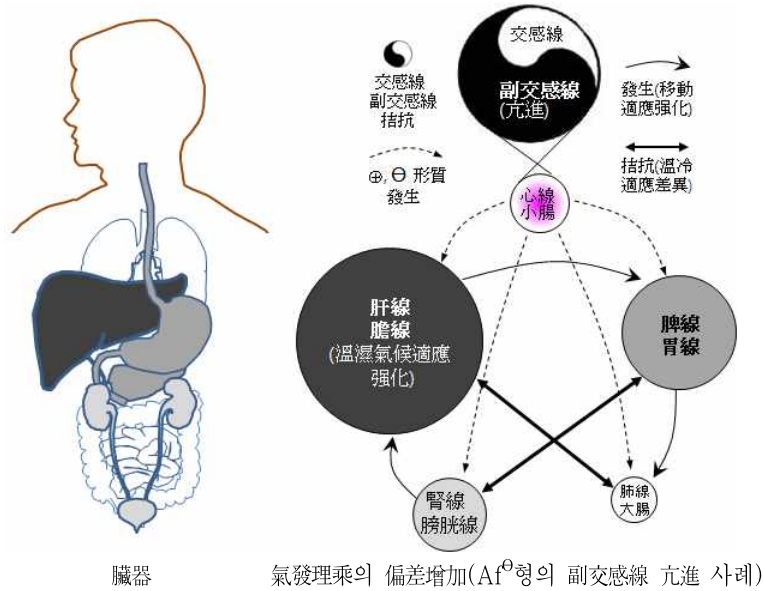
21) 人體는 진화에 따른 신비한 조화로 기능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서, 망막혈관분포, 기도식도교차, 척추하중과다부담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아직도 인문환경 스트레스를 맹수에 쫓기던 생명위협상황과 구분하거나 위층 아이 뛰노는 소리를 맹수나 자연재해 위험 소리와 구분하여 공격-방어-도주 반응준비가 유도되지 않고 같은 부류의 정보로 함께 누적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 소방업무가 화재의 진압보다 예방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듯이, 사후의 조정이나 교도처벌보다 氣發理乘에 따른 기후적응형질 맞춤 예방관리와 치유가 사법업무의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사후 사회관리에 앞서 사전 개인 心身관리가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적 전염병에서와 같이 인문환경에서도 오염원(예를 들어 화)이 배출 발현되어 확산 누적되어 나가기 전에 예방관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또한 개인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Af[○] 形質理發臟器線氣隨(偏在特性) 臟器 Af[○] 臟器線氣發形質理乘(偏差增加)

< 그림2 > Af[○] 표현형의 理發氣隨 편재특성과 氣發理乘 편차특성
(조기호·조한규 2008, 168쪽, 수정·보완)



臟器 氣發理乘의 偏差增加(Af[○]형의 副交感線 亢進 사례)

< 그림3 > Af[○] 표현형의 形質理가 乘한 상태에서의 偏差增加
(조기호·조한규 2008, 178쪽, 수정·보완)

사회적 문제로 인지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공공 사회관리 책무이행에 부합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Af^θ 표현형은 덥고 습한 기후환경에 적응하면서 形質理發臟器線氣隨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臟器線氣偏在 특성에 의하여 심장선과 폐선이 약화되고 부교감선이 강화되어 形質理의 제어(乘)에 맞게 臟器線氣가 발현(發)되는 원리(臟器線氣發形質理乘)에 의하여 小心하고 심폐기능의 활성화가 느려 언행이 느리고 순한 특성이 발현되며, 간선과 위장선 및 비췌장선이 강화되어 소화기능이 발달하고 습한 환경에 적응하여 비만해 지기도 쉬운 특성들이 발현된다. 그런데 환경과 그 해당 사회의 형평성에 영향을 받는 불섭생으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 제멋대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氣發理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形質理인 臟器線氣偏在特性이 제어(乘)하는 영향력 범위 안에서 편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심장선과 폐선 및 교감선이 더 약화되어(그림2, 3 참조), 심폐기능이 더 쉽게 저하되는 증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열대우림기후대에 적응하면서 발달된 느리고 움직임이 적은 활동이²³⁾ 더 위축되고 침체되어 매사에 의욕을 잃기 쉬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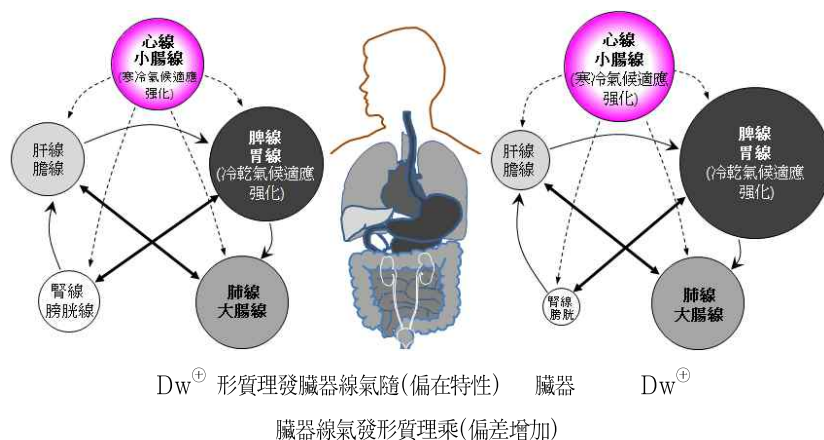
23) Af^θ 표현형의 정신적 및 사회적 특성 발현원인을 해당 형질발생 기후대의 자연 환경 특성과 관련하여 사회생물의 자연적응원리(理)에 따른 심리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Af^θ형의 형질이 형성된 열대우림기후대는 열대 Savana기후대와는 달리 습하고 덥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과 같아서 동작이 느리고 활동이 적어야 열을 덜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기에 유리하다. 그리고 숲이 우거진 곳에서는 Savana기후대와는 달리 근거리에서도 숨을 곳이 많아, 움직이지 않으면 시각차단이 용이하다(참조: 조기호, 2011,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64쪽). 그러므로 자연환경적응원리(理)에 따른 심리진화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느리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침착하고 온순하며 여유가 있는 정신작용의 특성은, 열대우림기후의 덥고 습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적응 진화하면서 理發氣隨에 따른 자연환경적응의 산물로 臟器의 적응특성과 함께 형성되어 Af^θ형에게 잔존하면서 인지적 무의식 작용으로 Af^θ형의 환경적응특성(形質理)에 맞게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氣發理乘의 원리로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치 열대우림기후대에서 근거리에서 숨어 있는 것 같이 음흉스럽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단지 형식적 사고일 뿐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타당하다고

등의 氣發理乘에 의한 감정(情)들이 발현될 수 있다. 여기에 불섭생으로 부교감선이 평소 향진된 상태보다도 더 향진되는 편차로 심화된다면, 대뇌 신피질의 기능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우울증상이 性發爲情에 의하여 발현되는 자연법칙에 따른 생리작용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다.²⁴⁾ 그런데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면 Af^θ 표현형에게서 발현되는 이러한 생리 유도증상들은 우주진화의 자연법칙이 인간의 心身에서도 예외 없이 작용되어 발생하는 當然한 현상이며, 본래 적응했던 더운 기후대가 아닌 추운 기후대와 추운 계절에 더 용이하게 발현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인내해야 한다고 믿고 참고 견디려 하지 말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면서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의 원리에 맞게 직접 부교감선을 약화시키고 폐선과 교감선을 강화시켜 심화된 편차를 조절함으로써 不善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지 않도록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용이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기 전에 Af^θ 표현형의 모든 장기선의 상태를 미리 살펴 그에 맞게 강화법 또는 약화법을 실시하여 심화되어가는 편차를 줄여줌으로써 몸과 마음의 질병을 예방관리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Af^θ 표현형에게서 환경의 영향으로 不善이 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理인 形質理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편차를 감소시켜 한편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不倚) 도와주어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Af^θ 표현형의 心身관리뿐 만아니라 Af^θ 표현형

보기는 어렵다.

- 24) 부교감선(CV)의 향진이 심화되면 Af^θ형뿐만 아니라 모든 기후적응형질 표현형에게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아무리 신뇌 신피질의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편차가 더욱 심화되면 급기야는 자살로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림3에서 Af^θ형의 비위선/부교감선 동반향진이 심화되면 폭식증이 발생될 수 있다.

이 속한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활용하면 효율적이고도 용이하게 찾아 적용할 수 있는, 인류가 찾고 있는 맞춤형신예방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예방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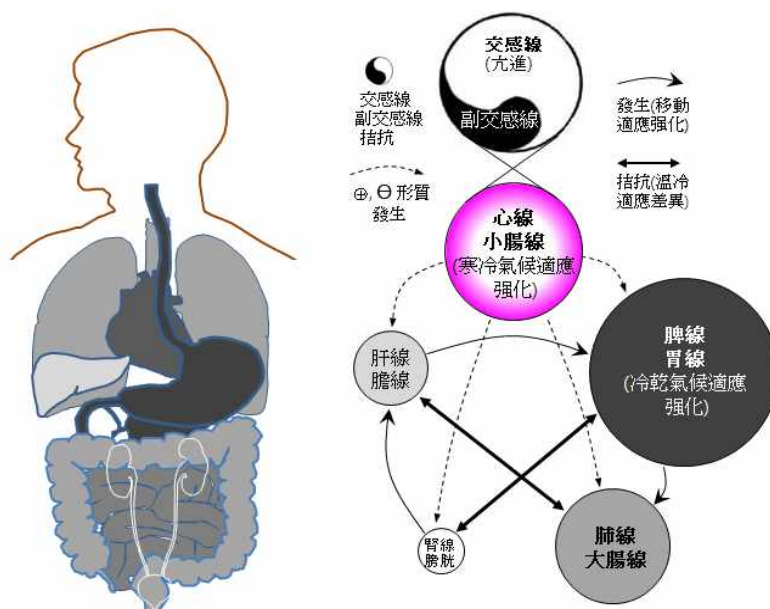
< 그림4 > Dw⁺ 표현형의 理發氣隨 편재특성과 氣發理乘 편차특성
(조기호·조한규 2008, 171쪽, 수정·보완)

다음으로 Dw⁺ 표현형은 춥고 건조한 기후대에 적응하면서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臟器線氣偏在 特性에 의하여 심장선과 폐선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形質理가 조절(乘)하는 대로 臟器線氣가 발현(發)되는 원리(氣發理乘)에 의하여, 심폐기능이 쉽게 활성화되어 활발하고 사교적이며 대외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심성이 발현(發)되고, 위장선과 비취장선이 강화되어 脾胃가 약한 Aw⁰ 표현형과는 반대로 脾胃가 좋은 사회적 특성도 인지적 무의식 작용으로 발현된다.²⁵⁾ 그런데 환경과 그 형

25) Dw⁺ 표현형의 정신적 및 사회적인 특성 발현원인을 사회생물의 자연적응원리

평성에 영향을 받는 불섭생으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 氣發理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形質理가 제어(乘)하는 영향범위 안에서 편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심장선과 폐선이 더 강화되며(그림4 참조), 따라서 심폐기능이 더 쉽게 항진되는 증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더 활발해지고 처한 환경과 생활습관에 따라서는 신중하지 못하고 성격이 급해지며 밖으로 돌거나 남의 일에 불필요하게 참견하기 쉬워지고 대뇌 신경질의 이성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즉흥적인 돌발 언행이 발현되어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화를 야기시키기도 쉬워지며 화도 더 잘 발현되는 등의 氣發理乘에 의한 감정(情)들이 발현되기도 쉬운데, 이는 영장류를 거쳐 신뇌 신경질이 크게 발달된 후에도 個人性의 情이 여전히 원시뇌 뇌간과 연계된 구뇌 변연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발생하도록 진화되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理)에 따른 심리진화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Dw⁺형의 형질이 형성된 냉대건조기 후대는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냉대 초원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적고 탁 트인 넓은 지역을 활동범위로 채집보다 수렵과 목축을 중심으로 한 삶이 이루어지는 기후대이다. 그리고 지금도 이 기후대에 속하는 중앙아시아 북부 냉대 초원지대 및 툰드라기후대에서는 주로 말을 달리며 또는 순록이나 쌍봉낙타를 기르며 목축을 하고 있는 유목민들이 있다. 따라서 이 기후대에서는 추운 곳이기 때문에 루이스맥박론으로 설명되는 신체말단부의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심폐기능이 활성화되어 활동적인 특성이 진화과정에서 생존에 유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조기호, 2011,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55쪽). 따라서 자연환경적응원리(理)에 따른 심리진화과정에서 발생한 언행이 빠르며 쾌활하고 활발하며 강인한 정신작용이 춥고 건조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적응 진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형성된 심폐기능 강화와 같은 臟器 특성과 함께 理發氣隨에 따른 자연환경적응의 산물로 형성되어 Dw⁺형에게 잔존하면서 인지적 무의식 작용으로 Dw⁺형의 환경적응특성(形質理)에 맞게 氣發理乘의 원리로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추운 기후대 적응형질 특성은 특성발현의 근원(形質理)이 되는 장기선의 특성과 함께 설명될 수 있는데, 춥지 않은 지역에서 유전되어 나타나면 추위를 상대로 발산되던 에너지가 가중 발현되어 더 강하게 발현될 수 있다.



臟器 氣發理乘 偏差增加(Dw⁺형의 心線/交感線 充進同伴 사례)

< 그림5 > Dw⁺ 표현형의 形質理가 乘한 상태에서의 偏差增加
(조기호·조한규 2008, 178쪽,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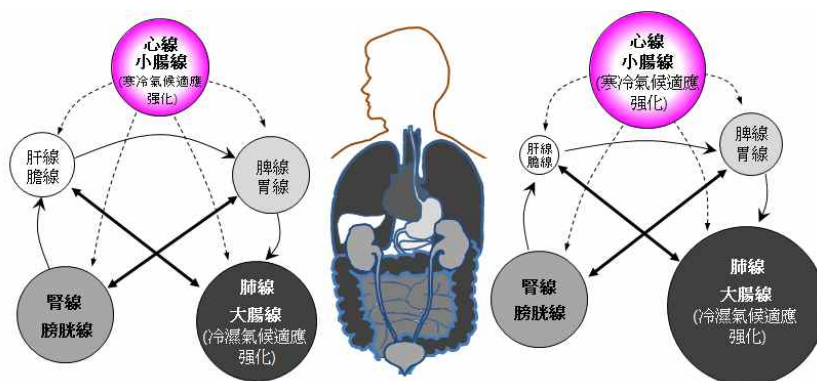
만약에 여기에 더불어 환경 및 그 형평성과 연계된 불섭생으로 통상 향진되어 있는 교감선이 더 향진되고 부교감선이 더 약화된다면(그림5 참조),²⁶⁾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언행에 치밀어 오르는 화가 발현되기

26) 교감선(GV) 향진이 심화되면 진화과정에서 중요했던 비상사태준비를 위한 투쟁-방어-도주 반응이 활성화되기 쉬워 모든 표현형에게서 화의 반응 발생확률이 높아지지만, 추위적응 특성 때문에 평소에도 교감선이 향진되어 있는 특성을 지닌 Dw⁺형과 Df⁺형의 경우에는 더 용이하게 화반응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변연계 중심의 그리고 누적되는 특성이 있는 화반응은 뇌진화역순으로 신경질의 이성을 통하여 제어하려하며 참고 억누른다고 해결되는 증상이 아니라 신경질이나 변연계보다 기능우선우위에 있는 자율기능의 뇌간과 연계된 장기선의 조절법(예를 들어, 부교감선 강화법과 교감선 약화법)을 포함한 뇌진화순행적 치유법의 적용

쉽고, 편차가 더욱 더 심화되면 급기야는 급가속 속성이 있는 분노와 감정폭발 및 돌발성 충동범죄로 까지도 진행될 수가 있다.²⁷⁾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생리작용 기인 증상들은 본래 적응했던 추운 기후대가 아닌 더운 기후대와 더운 계절에 더 용이하게 발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氣發理乘인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의 원리에 맞게 직접 부교감선을 강화시키고 교감선과 폐선을 약화시켜 심화된 편차를 조절함으로써 不善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정진수양보다 쉽게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은 Dw[⊕] 표현형의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기 전에 장기선의 강약편차 정도를 미리 살펴서 심화되어 가는 편차를 줄여줌으로써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과도한 감정발현도 예방하는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不善으로도 진행 가능한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形質理에 맞게 편차를 감소시켜 특정 장기선에 치우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無過不及) 平常의 상태로 臟器線氣를 유도하여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Dw[⊕] 표현형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예방관리하고 Dw[⊕] 표현형이 속한 사회를 건강하게 예방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진화순행적으로 추구하는 용이한 맞춤형의학의 방법도 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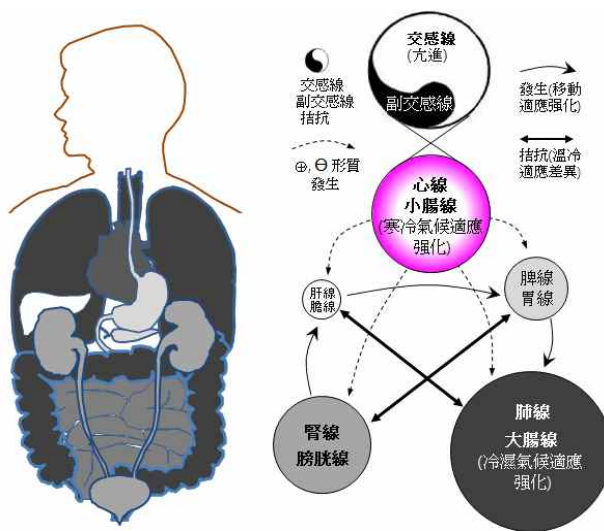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이러한 증상은 앞서 Af[⊕]형의 사례로 살펴본, 부교감선(CV) 항진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및 자살과 동일하게, 생리작용원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음양극관계의 역치 유 대상이다.



Df⁺ 形質理發臟器線氣隨(偏在特性) 臟器 Df⁺ 臟器線氣形質理乘(偏差增加)

〈 그림6 〉 Df⁺ 표현형의 理發氣隨 편재특성과 氣發理乘 편차특성
(조기호·조한규 2008, 173쪽, 수정·보완)



臟器 氣發理乘 偏差增加(Df⁺형의 心線/交感線 充進同伴 사례)

〈 그림7 〉 Df⁺ 표현형의 形質理가 乘한 상태에서의 偏差增加
(조기호·조한규 2008, 178쪽, 수정·보완)

다음으로 $Df^{④}$ 표현형은 활달하고 강인하며 카리스마가 발휘되는 정신작용이,²⁸⁾ 매우 춥고 습한 기후에 적합하도록 적응 진화하면서 형성되는 심폐기능의 강화와 같은 形質理의 특성과 함께 자연환경적응의 산물로 발생하여 $Df^{④}$ 형에게 잔존하면서 인지적 무의식 작용으로 臟器線氣偏在 특성에 상응하게 氣發理乘에 따라 발현된다. 그리고 환경과 그 형평성의 영향을 받는 불섭생으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 氣發理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形質理가 제어(乘)하는 영향범위 안에서 편차가 심화되기 때문에, 폐신과 심장선이 더 강화되며, 따라서 심폐기능이 더 쉽게 향진되는 증상이 발생하기 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영향 받는 처한 환경과 생활습관에 따라서는 매우 굴강하고 위압적이며 화도 자주 나고 즉흥적인 언행이 발현되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쉬어지는 등 심피질의 이성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감정(情)들이 발현되기 쉬운데, 이는 인품이나 인격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춥고 습한 기후환경에 적응하면서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形質理에 따라 생후 환경의 영향으로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의 원리에 의한 편차심화도에

28) $Df^{④}$ 표현형의 형질이 형성된 유라시아대륙 북부지역은 춥고 습한 기후대로 대부분 설원 및 빙평원의 해안가이다. 이곳은 대부분 초목이 거의 없고 눈과 얼음으로 덮인 황량한 평원으로 탁 트인 넓은 지역을 활동범위로 수렵과 어로를 중심으로 한 삶이 이루어지는 기후대이다. 이 기후대에 지금도 거주하는 Inuit 사람들의 선조들은 눈썰매와 작은 배를 타고 순록과 물개 사냥 및 물고기 등을 잡아 날고기를 주식으로 살아왔다. 그러므로 이 기후대에서는 추운 곳이라 보온혈액순환이 좋은 특성과 눈이 쌓여 걷기가 힘든 탁 트인 넓고 황량한 빙설평원과 얼음바다에서 식량을 찾아야 하는 진취적이고 강인한 개척정신이 진화과정에서 유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조기호, 2011,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64쪽).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형성되어 氣發理乘에 의하여 $Df^{④}$ 형에게서 발현되는 정신작용의 특성은 해당 자연환경 적응 진화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결과로 발생하여 해당 형질특성 발현의 근원(形質理)이 되는 장기선의 특성과 함께 설명될 수 있다.

기인하여 발현(發)되는 생리증상의 결과이다. 여기에 더불어 불섭생으로 평소 향진되어 있는 교감선까지 더 향진되면, 더 저돌적이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 인내하기 힘든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증상들은 본래 적응했던 추운 기후대가 아닌 더운 기후대와 더운 계절에 더 용이하게 발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氣發理乘인 臟器線氣發形質理乘의 원리에 맞게 직접 부교감선을 강화시키고 교감선과 폐선을 약화시켜주어 심화된 편차를 조절해줌으로써 不善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고 仁을 고취시키며 禮를 행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초를 자연스럽게 보강해 주는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방법은 Df[Ⓣ] 표현형의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기 전에 上氣되는 정도와 장기선들의 강화와 약화정도를 미리 살펴서 심화되어가는 편차를 줄여줌으로써 질병과 과도한 감정발현을 예방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不善이 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形質理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편차를 감소시켜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Df[Ⓣ] 표현형과 그가 속한 사회를 건강하게 예방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또한 인문학이 제시하는 인류가 찾고 있는 맞춤형신예방관리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不善으로 진행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해 형성되어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형질특성 발현의 근본원인이 되는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증가되는 경우에, 氣發理乘의 원리에 맞게 구체적으로 그 편차를 줄여주는 방법이 효율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기후적응형질의 표준 기본표현형을 대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²⁹⁾ 이상

29) 기본 표현형 이외에 나머지 변형 표현형인 Aw[Ⓣ]형, Af[Ⓣ]형, Dw[Ⓣ]형, Df[Ⓣ]형은 앞

과 같이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면, 각 개인의 기후적응형질 특성에 맞게 인류가 추구하는 홍익인간의 맞춤심신예방관리법과 사회예방관리법을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적용법으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오랜 진화기간동안 형성되어 유전되는 본성의 근본을 이루는 臟器線氣偏在 特性의 발현도는 氣發理乘의 원리에 의하여 생후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 나타나는 臟器線氣偏在의 편차 심화정도에 의하여 좌우되며, 그 편차가 심화될수록 인간의 心身은 불건강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 不善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섭생으로 발생하는 臟器線氣偏在의 편차를 미리 파악하여 氣發理乘의 원리에 따라 形質理에 맞춘 양생법으로 조절해주어야 불건강을 예방할 수 있고 不善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理發氣隨에 의하여 형성된 특성들이 발현되는 그 정도의 차이는 氣發理乘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해당 形質理의 편차특성에 맞게 臟器線氣가 發하는 작용에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작을수록 理發氣隨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 특성들의 발현되는 정도가 약하고,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커질수록 더 심하게 발현되어 心身병증으로도 발전될 수 있지만, 理發氣隨에 의하여 형성된 특성이 氣發理乘에 의하여 편차심화도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의 차이도 어디까지나 乘한 形質理의 범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표현형과는 구분되는 각 표현형별 고유 특성(性)들로 발현이 되므로, 각 표현형별 특성의 발현현상은 臟器線氣가 發하되 理가 乘한, 形質理의 기본틀 안에서 발현되는 氣發理乘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서 언급한 기본표현형들이 추운 지역이나 더운 지역으로 각각 이동하여(또는 유전결합으로) 변화되는 형질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표현형의 특성에 변화된 ㊸형질 또는 ㊹형질의 특성이 가감된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理發氣隨氣發理乘 적용 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편차가 커져 발현도가 심화되고 그 부작용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다시 氣發理乘의 법칙을 적용하여 치유할 수 있는데, 氣發理乘의 법칙을 적용하여 부작용을 치유한다는 것은, 乘한 形質理에 따른 각 표현형의 장기선별 편재된 강약특성의 관계에 맞게 강화법 또는 약화법을 실시하여 편재된 臟器線氣가 發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강약 편차를 해당 기후적응형질맞춤요법으로 상호 조절해주는, 즉 편재편차로 치우치지 않도록(不偏)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는 李滉의 통합 진화론을 적용하여 근본원인(性)을 찾아 氣發理乘의 원리에 맞게 치유하는 방법이 되며, 불가분의 인과관계에서 함께 진화해온 정신과 신체가 화평하게 조화(中)를 이루도록 유도하는(庸) 예방적이고 경제적인 근원 치유법이 될 수 있다.³⁰⁾ 이는 또한 不善이 될 수도 있는 情의 발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존재의 이상적 삶의 표상(人極)인 聖人과³¹⁾ 이상사회를 바라보며 그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氣發理乘을 적용하여 臟器線氣의 발현도(發)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李滉이 活人心方에서 제안한 방법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양생법들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형질특성 발현의 근본원인(理)이 되는 臟器線氣偏在의 편차를 살펴 조절해주는 방법은 形質理에 맞춘 강약조절법으

30) 공자는 천하국가를 고루 잘 다스리는 것이나 높은 관직을 사양하는 것이나 예리한 칼날을 밝는 것보다도 中庸이 어렵다고 강조하였는데(中庸: “子曰 天下國家可均也 爵祿可辭也 白刃可蹈也 中庸不可能也”), 이 中庸의 삶은 形質理에 맞게 性發爲情이 자연스럽게(不偏) 發하도록 장부선기편재의 편차를 줄여주는 맞춤예방관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1) 聖인이나 陰陽和平之人을 추구하는 것은 形質理가 太極(太極) 이후 우주진화전개의 통합 理에 부합되는 경지에 이루도록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인류가 중력, 강력, 약력, 전자기력을 모두 함께 설명 할 수 있는 만물법칙을 분리전의 단계로 역추적하며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 黃帝內經에서 언급되는 聖人과 陰陽和平之人에 관해서는 다른 논고에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로 臟器線氣를 직접 조절해주는 방법인데, 이에 관해서는 전고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생략한다.³²⁾

III. 結論

본고에서는 性理學의 理氣論을 발전시킨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단지 고전 철학학설로서의 가치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기후적응형질론을 사례로 고찰해보았다. 李滉은 그의 만년 대표작 聖學十圖에서 제1 太極圖 내부 圖面文을 통하여 통합진화학설로 우주전개 기본원리인 理(principle)를 밝히고, 빅뱅(太極) 이후 그 理에 의하여 우주형성기본물질인 氣(material)가 진화되어나가는 전개과정에서 萬物과 함께 진화해온 인간의 기본 理인 本性(性)을 설명한 후에, 제6 心統性情圖에서 인간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설명하였다. 이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하여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특성의 발생과 발현현상을 분석한 결과, 우주전개의 기본 원리인 理로부터 발생하여 그와 공통분모를 공유하며 진화되어온 形質理는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는데, 그 形質理가 바로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발현의 기본이고 이것이 곧 遺傳本性을 이루는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臟器線氣偏在 특성이며, 氣發理乘의 원리에 의하여 생후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하여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특성의 발현도를

32) 각주 16) 참조. 臟器線氣 偏在偏差를 조절하여 건강한 心身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손쉬운 방법은 다음 문헌에 소개되어 있다: 조기호·조한규,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람, 2008, 345쪽ff.

결정하는 것은 臟器線氣偏在의 偏差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形質理가 서로 다르게 유전된 각 표현형별로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사회적 특성도 다르게 발현되는 것은 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에 따라 性發爲情에 의하여 발현(發)되는 當然之事의 생리작용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되어 유전된 기본 틀인 기후적응형질 표현형별 장기선상호관계의 편차특성(形質理)은 未發의 心體에 해당되고, 이 心體의 기본틀 안(乘)에서 환경의 영향으로 氣發理乘의 원리에 의한 편차가 발생하여 已發의 心用이 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면 신뇌 대뇌피질의 이성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不善이 될 수 있는, 心用의 情이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臟器線氣偏在의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에는 不善이 발현되지 않도록,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理인 形質理에 맞게 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 원리를 적용하여 그 편차를 감소시키는 조절을 함으로써, 臟器線氣가 특정 臟器線에 치우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無過不及) 平常의 상태로 발현되도록 유도하여, 臟器線氣가 理法에 맞게 운용되고 善한 선천의 情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환경과 그 형평성에 영향을 받는 불섭생에 기인되어 불건강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不善은 질병을 예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不善의 예방 및 개인과 사회의 건강한 관리를 위해서는 氣發理乘의 臟器線氣發形質理乘 원리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偏差를 줄여주는 기후적응형질맞춤 심신예방관리법을 公的으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기후적응형질별로 발달된 신체장기작용원리(理)의 안정 평형이 손상(滅)되어 不善이 될 수 있는 情이 발현되지 않고 理發氣隨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形質理에 맞게 臟器線氣偏在의 偏差를 감소시켜 본래의 性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도록,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적용

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개인의 心身건강을 관리하고 그 개인들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인문학이 제시하는 개인맞춤 심신예방관리와 사회예방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류가 추구하는 홍익인간의 맞춤심신예방관리법과 사회예방관리법의 개발과 적용에 李滉의 학설이 적도로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인간과 그 사회를 이해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溫故而知新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문학은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박물관으로 보내놓고 한국인의 心身과 한반도 사회의 건강한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문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실험전체주의가 실행되면 인간존엄성을 포함한 생명존중과 화평한 사회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믿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을 聖學十圖와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기후적응형질론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李滉의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이 인간의 이해와 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心身과 사회를 건강하게 관리하여 화평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동연구를 통하여 理發氣隨氣發理乘 학설과 기후적응형질론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裴秉哲, 『今釋黃帝內經』素問, 靈樞, 서울, 成輔社, 1995, 524-531쪽.
- 李師朱堂(1780) 저/최삼섭·박찬국 역, 『역주태교신기』, 정보사, 2002, 53-54쪽.
- 李濟馬 저, 동의학연구소 역,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2002, 71쪽.
- 조기호, “李師朱堂의 氣候適應形質 考察”, 한국여성철학, 15호, 2011, 29-66쪽.
- 조기호·조한규, 『인간과 환경』, 도서출판 청담, 2008, 64쪽ff.
- 조기호, “禮에서의 方向性 理解 - 天人合一과 物我一體의 觀點에서 人間과 自然의 方向性 分析을 통하여 -”, 中國學論叢 제24집, 2007, 149-188쪽.
- 조기호, “기후대별 환경적응체질의 발생과 특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 32-2, 2006, 149-163쪽.
- 조기호, “李滉 聖學十圖 太極圖의 理解와 應用”, 퇴계학과 한국문화 제36호, 2005, 277-371쪽.
- 陳淳 저/김영민 역, 『북계자의』, 예문서원, 2001, 81쪽.
- 催漢綺(1857) 저/손병욱 역, 『氣學』, 券二, 여강출판사, 1992, 223쪽.
- 韓國思想研究會, 『圖說로 보는 한국유학』, 예문서원, 2002, 89-137쪽.
- 許浚 엮음, 동의과학연구소 역, 『東醫寶鑑 제1권 내경편』, 휴머니스트, 2002, 987·1245쪽.
- 許浚 엮음, 조현영외 역, 『東醫寶鑑 2차 개정판』, 여강출판사, 2003, 305쪽.
- 洪元植, 『黃帝內經靈樞解釋』, 高文社, 1987, 293-296쪽.
- Matt Ridley 저, 김한영 역, 『본성과 양육(Nature Via Nurture)』, 김영사, 2003, 374쪽.
- Han-Gue Jo, Gi-Ho Jo, “Effect of acu-magnetic stimulation on heart rate variability”, Medical Acupuncture, 23(1), 2011, pp.107-109.
- Han-Gue Jo, Gi-Ho Jo, “Electroencephalogram activity induced by magnetic stimulations on heart meridian”, Neuroscience Letters, 495(2), 2011, pp.107-109.
- Kumar R, et al, “Genetic Ancestry in Lung-Function Prediction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3(4), 2010, pp.321-330.
- Maekinen T.M, et al., “Cold temperature and low humidity are associated with

increased occurrence of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Respiration Medicine*, 103(3), 2009 pp.456-462.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WHO 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1993, pp.9-14, pp.69-73.

<http://www.bradshawfoundation.com/journey> pp.1-20.

Abstract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Yi Hwang's theory "Principle Issues and Material Follows, Material Issues and Principle Mounts"

Jo, Gi-Ho

Yi Hwang (1501~1570) explained his theory "principle issues and material follows, material issues and principle mounts" in the sixth diagram according to the saying "The mind combines and governs nature and feelings" in his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This theory can be applied usefully not only to manage the mental and physical health of an individual but also to manage the health of a society. In the first diagram of the "Supreme ultimate" in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 Yi Hwang explained his synthetic evolution theory which integrates the evolution of life with the evolution process of the physical universe after the big bang. With his synthetic evolution theory, he explained the developing principle (nature) of the universe after the big bang (supreme ultimate) and the development of the physical universe (material). The nature of mankind is a part of the common principle of universe development, and the human body comes into being with the material of physical universe through the universe evolution process. Human nature also has a common denominator with the other creatures of the universe on the same level of evolution .

When we apply Yi Hwang's theory, "nature (principle) issues and body (material) follows, body (material) issues and nature (principle) mounts" to the human characters adapted to different climate zones, we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hereditary nature and the postnatal effect of the environment.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of humans primarily originate from hereditary nature. We can describe it as "nature issues and body follows".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s of humans are revealed depending

on secondary postnatal changing levels during the growth period, and the secondary changes proceed under hereditary nature. We can express it as, "body issues and nature mounts". We can also explain his theory with the trait of the human body meridian. Every human constitution, the synthetic phenotype of different characters adapted to climate zones, has their own maldistributed meridian principle adapted to climate zones which developed as early humans moved from Africa to new oecumenes in other continents. Their own maldistributed meridian principle of each phenotype is the origin of their different physical, emotional,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We can describe it as, "phenotype principle (nature) issues and body meridian follows". The characters of phenotype are revealed depending on secondary postnatal changing levels of declination between the strong and weak condition of body meridians, and the secondary changes proceed under phenotype principle (nature). We can express it as, "body meridian issues and phenotype principle (nature) mounts". This secondary postnatal changing level between strong and weak declination conditions of body meridians is the important origin of the disorder and expression level of human emotion and behavior. If the declination of the strong and weak conditions of body meridians grows serious, it can cause not only individual disease but also social side effects like aberrant behavior.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out the declination level of strong and weak conditions of body meridians as early as possible, and the management of the condition of body meridians has priority over any other method to manage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the individual and the health of society. Very delicate and non-invasive, magnetic acupuncture can be applied to diagnose and manage the conditions of body meridians differently according to what phenotype principle the subject has. This is the concrete method of applying the theory "principle issues and material follows, material issues and principle mounts" from Yi Hwang for individual and social health.

Key Word

human behavior, Yi Hwang, nature, nurture, principle, material, character, phenotype, climate, preventive medicine, personalized medicine, meridian, health, constitution, legal stability, konkrete Billigkeit, nature versus nurture.

▪ 논문투고일 : 2011.6.29 심사완료일 : 2011.7.30 게재결정일 : 2011.8.5